

ASSOCIATION NEWS

오세훈 서울시장 초청 주택 업계 간담회

한국주택협회 신훈 회장이 지난 9월 1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서울프라자호텔 루비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이종수 수석 부회장(현대건설 사장), 윤오수 상근 부회장 등 회원사 대표와 서울시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초청 주택 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신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택 보급률과 1인당 주거 면적은 각각 91.8%, 6평으로 선진국은 물론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서울시의 주택 공급은 최근 3년간 5만 호에 그쳤고, 올해엔 3만 호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여 수급 불균형에 의한 가격 상승과 주거 수준 하락이 예상된다. 서울 구도심 등 도시 과밀 지역에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해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는 ▲ 우수 디자인 공동 주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서울시 공동 주택 심의 기준 개선 ▲ 조합원의 주택 공급 배정과 관련한 분쟁 예방을 위한 주택 공급 기준 명확화 ▲ 재건축 임대 주택 공급 규모 비율 삭체 ▲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의 최고 높이 제한 개선 ▲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거 면적 비율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우수 디자인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위해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평균 층수 개념을 도입했다고 말하고, 간담회에 건의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훈 회장, '2008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 참석-대상에 김포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동백 아펠바움 등 4곳 수상

한국주택협회 신훈 회장은 지난 9월 22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08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시상식에는 정중한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해 한명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임종건 서울경제신문사 사장 등 500여의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08 한국건축문화대상' 영예의 대상(대통령상) 수상작에 김포 수기마을 힐스테이트(공동주거 부문), 동백 아펠바움(일반주거 부문), 송실대 조만식기념관&웨스트민스터홀(사회공공 부문)과 아이마크 오창공장(민간 부문)이 수상했다.

또한 국무총리상이 주어지는 본상에는 관악산 휴먼시아(공동주거), 루트 하우스(일반주거), 백남준 아트센터(사회공공), 워커히호텔 아카데미(민간)가, 우수상에는 여의도 자이과 단원어린이도서관, 제주 4.3사료관 등 14개 작품이 수상했다.

시상식 직후에는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전시회가 건설회관 2층 로비에서 열렸다. 신 회장은 등 행사 참석자들은 개막 테이프를 끊은 뒤 수상자들과 함께 전시작품을 둘러보았다.

한편, 지난 1992년 제정돼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서울경제신문과 국토해양부·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보증·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한다.

운영홍보위원회 개최

협회가 지난 9월 9일, 서울 남대문로5가 대우센터빌딩에서 봉희룡 위원장(한화건설 전무)을 비롯한 운영홍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홍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최근 증폭되고 있는 건설 업계 유동성 위기설을 불식시키기 위해 금융권의 PF 대출 만기 연장 등 대책 마련과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 요구하고 협회를 비롯한 17개 건설 단체가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호소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상향(9억 원 초과분)과 중부세 과표 적용률 동결,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3년) 강화 등 정부의 '9·1 세제 개편안'을 보고했다.

또한 주택 사업 인허가 절차 소요 기간을 41주에서 23주로 단축하는 정책 건의와 '8·21 대책'에 대한 추가 대책으로 금융 대출 개선과 전매 제한 완화 소급 적용,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운영홍보위원들은 9·1 대책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강화 등은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프로젝트 금융 투자 회사(PFV)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는 PFV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므로 회원사와 협조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윤오수 상근 부회장, 알바트로스 기록

지난 9월 6일, 윤오수 상근 부회장이 강남 300CC에서 라운딩 중 아웃코스 1번홀(거리 482m)에서 알바트로스를 기록했다. 파 5 내리막 홀에서 티샷으로 약 250m를 날아간 공은 50여 m의 런이 있었으며, 나머지 185m(실 거리)의 내리막 거리를 6번 아이언으로 친 샷이 홀 주변에 떨어지면서 굴러 올라 홀컵으로 사라진 것이다. '알바트로스(더블 이글)'는 파 5홀에서 두 번 만에 홀컵에 들어가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행운이라 흔히 5년간(홀 인원은 3년간)은 운이 좋고 재수가 있다는 속설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초청 주택업계 간담회



'2008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



운영홍보위원회 개최



윤오수 상근 부회장